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이언 맥닐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장진경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을 활발히 이끌었던 이언 맥닐(Eoin MacNeill, 1867-1945)의 민족주의적 신념을 분석하고, 그가 1920년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새로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맥닐은 당대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게일연맹과 군사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아일랜드 의용군 모두의 조직과 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20세기 아일랜드 민족운동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우유부단한 지도자’ 혹은 ‘부활절 봉기 실패의 책임자’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주로 받아왔다. 1960년대부터 아일랜드 민족운동사 연구에 수정주의가 도입되면서 맥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의 분석에 그칠 뿐, 그가 보유하고 있던 신념과 그의 활동이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지향점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맥닐은 분열된 아일랜드 인들을 ‘하나의 아일랜드’ 안으로 통합하고 의회당이 독점하고 있던 자치 운동을 다시 대중 중심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인물이다. 그가 게일연맹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1893년의 아일랜드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톨릭과 신교도를 아우르던 민족 지도자 찰스 파넬이 1891년에 사망하면서 이전부터 아일랜드 사회에 존재해 왔던 종교적인 분열은 심화되었다. 특히 신교도가 주를 이루고 있던 얼스터 지역이 자치법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종교적, 지역적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대중을 민족주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동원하였던 파넬과 달리 의회당의 새로운 수장이 된 레드몬드는 대중 정치를 신뢰하지 않았고, 의회를 통한 자치법의 상정만을 유효한 자치 운동의 수단으로 삼았다. 가톨릭과 신교도로 분열된 아일랜드 대중은 민족주의 운동에서 주변적인 위치로 물러나 있었다.

본고는 이런 상황 하에서 맥닐이 전개하였던 민족주의 운동을 문화 영역에서의 활동과 군사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일관적인 태도와 신념에 대하여 분석한다. 문화적 민족주의 영역에서는 언어를 중심으로 아일랜드 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중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게일연맹 활동을, 군사적 민족주의 영역에서는 대중이 무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자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아일랜드 의용군 활동을 살펴본다.

맥닐의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었고, 그는 각각의 단체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비정파적, 비종파적 단체로 시작하였던 게일연맹의 경우 1913년 비정파적 노선을 철회하면서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을 조직에서 배제하였으며, 아일랜드 의용군은 1916년 부활절 봉기가 발발하였을 때 잉글랜드에 대항하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방어적 군사주의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맥닐의 희망과는 반대로 얼스터 지역과의 통합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아일랜드 내에서 가톨릭과 신교도의 결합 역시 요원해졌다. 그러나 맥닐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을 대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자치 운동을 이끌어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파넬 사후 의회당에만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 대중은 게일연맹과 의용군 활동을 경험하며 이제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로 스스로 일어서게 되었다. 20세기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마이클 콜린스와 에이몬 데 발레라 역시 게일연맹에서 아일랜드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의용군에서 군사 훈련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영-아일랜드 게릴라 전쟁과 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에 기여하면서 맥닐의 유산은 아일랜드의 역사 속에 남았다.

주요어: 이언 맥닐, 아일랜드 민족주의, 게일연맹, 아일랜드 의용군, 부활절 봉기

학번: 2013-20043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맥닐의 언어 민족주의와 게일연맹	7
1. 언어를 통한 민족 통합의 노력	8
2. 게일연맹의 구상과 실현에서 대중의 중요성	16
III. 맥닐과 아일랜드 의용군 활동	23
1. 아일랜드 의용군의 설립 과정	23
2. 부활절 봉기에 대한 맥닐의 태도	33
IV. 결론	40
참고문헌	42
Abstract	50

I. 서론

아일랜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무관의 왕’으로까지 불리던 민족 지도자 찰스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이 사망한 1891년부터 1921년 영-아일랜드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약 30년간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에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파넬이 아일랜드 의회당(Irish Parliamentary Party)¹⁾의 수장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1880년대만 하더라도 민족주의 운동은 입법적인 수단을 통한 자치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자유당도 보수당도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영국의 정치적 상황 덕에 의회당은 자유당과 연합하여 1886년과 1893년 자치 법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비록 법안이 두 번 모두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민중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치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품었다.²⁾ 그러나 파넬이 유부녀와의 불륜 스캔들로 인하여 실각한 뒤, 이듬해 사망하면서 아일랜드 의회당은 1890년 레드몬드(Redmond)에 의해 재통합될 때까지 세 분파로 분열되고 말았다. 파넬의 추문과 의회당의 분열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 아일랜드의 청년층 일부는 1890년대 민족주의 운동의 방향을 정치에서 문화로 돌리게 되었다.³⁾ 뿐만 아니라 파넬의 집권 기간 동안 토지연맹(Irish National Land League)⁴⁾을 통하여 의회당의 통제 하에 있었던

1) 1800년 합병법(Act of Union)에 의하여 아일랜드가 영국으로 공식 합병되면서 아일랜드에서는 의회가 사라지는 대신 100명의 하원의원들이 영국 의회에서 아일랜드의 입장을 대표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의회당은 파넬에 의하여 1882년에 창설된 정당으로, 아일랜드 의회의 설립 및 자치의 획득을 목표로 삼았다. 의회당은 1918년 경선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기치로 내세운 급진주의적 정당인 신 페인(Sinn Féin)에 패배하기 전까지 아일랜드 내 제 1정당의 지위를 30년 간 유지하며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2) 아일랜드 자치법안과 관련해서는 김기순, 『글래스스턴과 아일랜드: 자치법안 정치사 연구』(한림대학교 출판부, 2009)를, 당대 영국 정치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박지향, 『클래식 영국사』(김영사, 2012)를 참조할 수 있다.

3) W. B. Yeats, *Autobiographies* (London: Macmillan, 1956), p. 554; 파넬 사후 아일랜드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는 Michael Wheatley, *Nationalism and the Irish Party: Provincial Ireland, 1910-19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를 참조할 수 있다.

4) 아일랜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종교 문제와 결부된 토지 문제였다. 아일랜드

군사적 민족주의자들 또한 클라크(Thomas Clarke)⁵⁾의 복귀와 함께 재정비를 시작한 아일랜드 형제단(Irish Republican Brotherhood)에 의하여 다시 활기를 얻으며 의회당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1882년 파넬의 주도 하에 창당되어 계속해서 아일랜드의 제 1정당으로 기능하던 아일랜드 의회당은 1918년 12월의 총선거에서 독립을 기치로 내세운 신 페인(Sinn Féin)에 처음으로 패배하였고, 이후로 신 페인이 공교롭게 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회생하지 못 하게 되었다. 다수의 아일랜드 인들이 입법을 통한 자치의 획득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수단에서 등을 돌려 무력적 수단을 불사하는 독립의 추구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시기 동안 활발히 활동했던 민족주의자 이언 맥닐(Eoin MacNeill)의 존재를 제외하고서는 논할 수 없다.

맥닐은 파넬 사후 30년 동안 의회 밖에서 문화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아일랜드 자치의 주춧돌을 놓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얼스터 지역의 글렌암에서 1867년 가톨릭교도로 출생하였으며, 아일랜드 중세사 교수이자 다양한 민족주의적 단체들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민족주의 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일생동안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평가받아 왔으며, 사후의 평가 역시 그로부터 크게 벗어나

랜드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는 가톨릭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데 반해 소수에 불과한 신교도 지주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에서 일련의 토지 개혁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1879-1882년 동안 아일랜드 전역에서 전개된 토지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소작농들의 토지 소유권 획득 운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페니언주의 운동과 결합하였는데, 파넬은 토지 소유권 획득 운동을 관장하는 단체인 토지연맹이 설립될 당시 의장직을 수락함으로써 토지운동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파넬은 혁명적 수단을 선호하지는 않았으나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고, 페니언주의자들은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던 파넬과 협력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자제했다. 이렇듯 파넬 생전에는 의회적 수단과 혁명적 수단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가 사망한 이후로는 군사적 민족주의자들이 의회당의 온건적 민족주의자들과 단절되고 말았다.

5) 형제단의 수장으로, 1883년 런던교를 폭파하려 시도하다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15년의 유형생활 끝에 석방되었고, 석방 이후 잠시 미국에서 생활하다 영국으로 돌아와 형제단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의 복귀를 계기로 활동이 멈추어 있던 형제단에 새로이 활기가 돌았고 형제단 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혁이 이루어졌다.

지 않았는데 이는 학자라는 그의 직업적 특성과 문화 민족주의 분야에서 활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영역에서 그가 보여준 다양한 활동은 이보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맥닐의 업적은 문화적 민족주의와 군사적 민족주의 양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문화 민족주의자로서 맥닐은 1909년 아일랜드 국립대학(University College)에 중세사 교수로 임용되어 아일랜드의 역사와 언어의 연구 및 아일랜드어 대중화에 힘썼으며, 구어로서의 아일랜드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게일연맹을 설립하고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군사적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그는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방어적 군사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아일랜드 의용군을 조직하였으며, 의용군의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아일랜드의 젊은이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잉글랜드에 대한 저항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민족주의 운동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1919년 신 페인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의회(Dáil Éireann)가 설립되었을 때 내각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었으며, 내전 이후 수립된 아일랜드 자유국에서는 1925년까지 교육부 장관직을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과 대영제국회의에 아일랜드 자유국의 대표로 참석하였을 정도로 맥닐은 20세기 초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서 맥닐이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 되어 왔다. 게일연맹과 관련해서는 초대 회장인 더글라스 하이드(Douglas Hyde)만이 주목을 받을 뿐 맥닐의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군사적 민족주의 분야에서 그에 대한 서술은 “부활절 봉기를 반대함으로써 부활절 봉기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그쳐 왔다.⁶⁾ 그렇다면 맥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6) 게일연맹의 설립자로서의 맥닐에 대해서는 그의 언어 민족주의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만이 있을 뿐, 그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던 사상이나 신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Timothy G. MacMahon, *Grand Opportunity: The Gaelic Revival and Irish Society, 1893-1910*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8); 군사적 민족주의 분야에서 맥닐에 대한 서술은 부활절 봉기의 반대자라는 서술이 지배적이다. Paul Bew, *Ireland: the Politics of Enmity 1789-2006* (Oxford: Oxford

는 무엇인가?

1960년대 이전까지 아일랜드의 민족운동사 연구는 식민 경험을 토대로 부활절 봉기와 아일랜드 내전에 활발히 참여한 “민족적 영웅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⁷⁾ 특히 강경한 분리주의자였던 데 발레라(Éamon de Valera)가 아일랜드의 독립 이후 정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봉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민족적 영웅으로 격상되었으며, 자연히 부활절 봉기에 반대한 맥닐에 대한 평가 역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적 인 역사 서술에 대한 반박으로 수정주의가 도입되면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부활절 봉기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 역시 가능해졌다. 그러나 소위 “온건주의자”로 평가 받는 맥닐에 대한 연구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로 맥닐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군사적 민족주의 분야에서는 놀란(Kevin B. Nowlan)⁸⁾과 맥개리(Fearghal McGarry)⁹⁾가 급진주의자들에 대항하는 맥닐의 행동을 새롭게 분석하여 그가 단순한 변덕으로 부활절 봉기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 봉기의 한계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시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화적 민족주의 분야에서는 허친슨(John Hutchinson)¹⁰⁾이 하이드에 가려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맥닐에 주목하였으며, 맥닐이 사실상 아일랜드 언어 운동에서 하이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맥닐 개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아니라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자체에 대한 재평가의 일환으로서 맥닐을 언급한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문화적 민족주의와 군사적 민족주의 각 영역에서의 재평가를 통하여 맥닐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해

University Press, 2007)

- 7) 아일랜드 역사 서술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Richard English, “Directions in Historiography: History and Irish Nationalism,” *Irish Historical Studies*, Vol. 37, No. 147 (2011), pp. 447-460; 박지향, 「아일랜드 역사서술: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제 50호 (2000), pp. 251-279를 참조할 수 있다.
- 8) Kevin B. Nowlan, *The Making of 1916: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ising* (Dublin: Stationery Office, 1969)
- 9) Fearghal McGarry, *The Ris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10) John Hutchinson, *The Dynamics of Cultural Nationalism: The Gaelic Revival and the Creation of the Irish Nation State* (London: Allen&Urwin, 2008)

석이 가능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가 파넬 사후 30년 간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방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맥닐을 재조명한 놀란, 맥개리, 허친슨과는 달리 마틴(F. X. Martin)·번(F. J. Byrne)¹¹⁾, 그리고 티어니(Michal Tierney)¹²⁾는 처음으로 맥닐이라는 인물 개인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군사적 민족주의 양측에서 맥닐을 균형 있게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마틴과 번의 경우 일생 동안 학술적, 민족주의적,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맥닐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한 권의 연구서로 편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 맥닐이 아일랜드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맥닐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들을 종합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일관적이고 근본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들과 달리 티어니는 맥닐의 일생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을 통하여 그의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측면을 밝히고, 그가 게일연맹 활동과 의용군 활동 중에 보여준 ‘일탈적 행동’들을 당대의 상황에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맥닐의 선택이 단순히 현재에 대한 실용주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민족주의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맥닐의 활동이 이후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경향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맥닐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이 전환점을 맞이하던 시기에 그 변화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이 시기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은 의회를 통한 자치의 추구에서 대중 중심의 독립 운동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1921년 아일랜드가 자치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만큼 이 시기 아일랜드의 자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닐의 활동이

11) F. X. Martin and F. J. Byrne (ed.), *The Scholar Revolutionary: Eoin MacNeill, 1867-1945, and the Making of the New Ireland* (Shannon: Irish University Press, 1973)

12) Michael Tierney, *Eoin MacNeill: Scholar and Man of Action, 1867-1945*, F. X. Martin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맥닐이 채택한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20세기 초반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서 그의 이상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표적 조직인 게일연맹에서의 활동 과정을, 3장에서는 군사적 민족주의의 대표적 조직인 아일랜드 의용군에서의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맥닐이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견지하고 있던 이상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며, 그가 이후의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II. 맥닐의 언어 민족주의와 게일연맹

파넬 사후 아일랜드의 젊은 민족주의자들이 의회 민족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선회한 곳은 바로 문화 영역이었다.¹³⁾ 이는 1890년대의 아일랜드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인들은 모국어인 아일랜드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잉글랜드로부터 온 문학 작품과 연극, 스포츠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였다.¹⁴⁾ 여러 문화적 요소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잉글랜드화된 것은 바로 언어였다. 영국의 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에서는 아일랜드어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아일랜드 내의 신교도 지주들 역시 소작농들이 아일랜드어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소작권을 빼앗아 쫓아내는 등 아일랜드어의 사용을 강경하게 탄압하였다.¹⁵⁾ 아일랜드어의 쇠퇴는 지배층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피지배층의 자발적인 금지에 의한 결과이기도 했다. 1840년대의 대기근을 거치면서 아일랜드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등지로의 이민이 활발해졌고, 영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어는 빈곤의 상징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

13) 19세기 말-20세기 초 아일랜드의 문화 민족주의 전반에 대해서는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기파랑, 2008); P. J. Matthews, *Revival: The Abbey Theatre, Sinn Fein, the Gaelic League and the Co-operative Movement* (Cork: Cork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Field Day, 2003); Oliver MacDonagh, W.F. Mandle and Pauric Travers, *Irish Culture and Nationalism 1750-1950* (London: Macmillan in association with Humanities Research Cent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1)을 참조할 수 있다.

14) 당대의 여러 지식인들은 잉글랜드 문화에 잠식당한 아일랜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게일연맹의 설립자인 더글라스 하이드는 1892년 민족문학협회(Irish National Literary Society)의 설립식에서 “탈 영국화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de-Anglicisation of Ireland)”이라는 연설을 통하여 잉글랜드에 대한 무의미한 모방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D. P. 모란은 *The Philosophy of Irish Ireland* (Dublin: University College Dublin Press, 2006)에서 잉글랜드를 모방하는 아일랜드의 엘리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설픈 잉글랜드성을 모방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게일인(The Gaelic)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John Ryan (ed.), *Féil-sgríbhinn Eóin Mhic Néill: Essays and Studies Presented to Professor Eoin MacNeill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May 15th 1938* (Dublin: Three Candles, 1940), p. 556.

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일랜드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1845년까지만 하더라도 40%의 아일랜드 인이 사용하던 아일랜드어는 1890년대에 이르면 고작 인구의 19.2% 정도만 사용하는 소수의 언어가 되었다.¹⁶⁾ 맥닐이 언어 협회인 게일연맹을 창설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그는 언어를 통해 민족을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고, 게일연맹은 이러한 그의 신념이 실현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1. 언어를 통한 민족 통합의 노력

1893년 7월 31일 맥닐의 주도 하에 하이드, 켈리(Martin Kelly) 등 구어로서의 아일랜드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블린에 모여 사라져 가고 있는 아일랜드어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이드를 의장으로, 맥닐을 임시 명예 간사로 선출하고 게일연맹(Gaelic League)¹⁷⁾이라는 비정파적, 비종파적 언어 단체를 설립하였다.¹⁸⁾ 게일연맹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초대 의장이었던 하이드이지만 통념과 달리 실제 운영은 맥닐이 담당하고 있었다.¹⁹⁾ 그는 게일연맹이 창설된 1893년부터 신경 쇠약으로 인해

16) Pádraig Ó Riagain, *Language Policy and Social Reproduction: Ireland 1893-1993* (Oxford: Clarendon Press), p. 5. (Brigitte M. French, "Linguistic Science and Nationalist Revolution: Expert Knowledge and the Making of Sameness in Pre-Independent Ireland", *Language in Society*, Vol. 38, No. 5 (November, 2009), p. 610 에서 재인용.)

17) 게일연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박지향, 「게일연맹과 언어 민족주의」, 『서양사론』, 제 84호 (2005. 3), pp. 109-141를 참조할 수 있다; 1893년 7월 발간된 게일연맹 전단에서는 게일연맹의 설립 목적으로 1. 아일랜드 민족 언어로서 아일랜드어의 보존과 구어로서의 사용 확대를 들었으며 2. 현존하는 게일 문학의 연구와 출판, 아일랜드어로 쓰인 근대 문학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18) Tierney, *Eoin MacNeill*, pp. 24-25; 게일연맹의 창설 이전에 이미 아일랜드 고고학 협회(the Archaeological Society, 1840), 켈트협회(Celtic Society, 1845), 어시안 협회(Ossianic Society, 1853)등 아일랜드어의 전파를 위해 설립된 협회들이 있었으며, 1970년대에는 아일랜드어 보존 협회(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Irish Language, 1876)와 게일 협회(Gaelic Union) 등의 단체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게일연맹보다 앞서 조직된 단체들은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문어로서의 아일랜드어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19) Tierney, *Eoin MacNeill*, p. 25. 하이드는 당시 연맹의 중앙 지부가 위치한 더블린이 아닌 자신의 고향 로스커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회의 일들을 도맡

직함을 내려놓게 된 1897년까지 간사로서 무보수로 근무했으며, 1897년 이후로도 게일연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의 편집장 일은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1894년부터 게일연맹의 비공식적 기관지 역할을 했던 민족주의적 신문 《게일 저널(*Gaelic Journal*)》의 편집장이 되었으며, 1899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발행된 기관지인 《빛의 검(*An Claidreamh Soluis*)》의 초대 편집장 일을 맡아 연맹의 목소리를 대표하였다.²⁰⁾ 건강이 회복되고 난 이후 1903년에 그는 연맹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하이드가 사퇴한 이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되었다. 맥닐은 게일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아일랜드어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을 몸소 돌아다니며 아일랜드어를 가르쳤고, 여러 지방에서 아일랜드어의 보존을 위한 연설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²¹⁾

게일연맹이 설립되기 전부터 맥닐은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아일랜드어 부흥을 위한 언어 단체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었다. 맥닐은 성장 과정에서 점차 아일랜드 고유의 정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887년부터는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아일랜드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아일랜드어에 대한 애정이 강해진 그는 1891년부터 1908년까지 아일랜드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지역인 아란 섬을 매년 방문하여 장기간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식민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언어가 주는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음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1890년대의 파넬 논쟁을 둘러싼 정치적 분파주의 역시 그로 하여금 당대의 젊은이들처럼 정치가 아닌 문화적 요소, 특히 언어에서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찾아내도록 만들었다.

당대의 민족주의자들이 아일랜드 민족은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이나 18세기 의회주의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믿었던 것과

아 처리하고 있는 쪽은 더블린에서 지내고 있던 맥닐이었다.

20)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 81.

21) F. X. Martin, *Leaders and Men of the Easter Rising: Dublin 1916*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 137.

달리 맥닐은 아일랜드 민족이 ‘5-6세기의 기독교와 켈트 문명의 결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아일랜드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켈트 민족에 주목했던 그의 독특한 견해는 대중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나 언어에 대한 그의 강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에게 있어서 켈트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은 인종적 특성이 아니라 ‘언어’의 독창성에 있었기 때문이다.²²⁾ 맥닐은 아일랜드 켈트족이야말로 민족 문학을 만들어낸 최초의 민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에게는 고유한 언어의 보유야말로 아일랜드가 독립국으로 인지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해당했다.²³⁾

언어에 대한 맥닐의 태도는 이미 1891년 12월 《아일랜드 기독교(*Irish Ecclesiastical*)》에 실린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아일랜드어가 보존되어야 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하여 잘 드러났다. 그는 주요 독자인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어가 되어가고 있는 아일랜드어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민족성과 언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맥닐은 갈리아 언어를 없애려고 했던 로마의 정책 하에서 언어를 상실하면서 민족성도 함께 상실했던 갈리아인의 예를 들어 언어와 민족성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아일랜드 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며 우려하였다.²⁴⁾

맥닐이 지적한 바대로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일랜드 인들은 모국어를 거의 상실하였고, 이제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아일랜드 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민족적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종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아일랜드어를 끝내 지켜내지 못 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둔다면 아일랜드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수단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²⁵⁾

이렇듯 언어를 통한 아일랜드 민족 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던 맥

22) Eoin MacNeill, *Phases of Irish History* (Dublin: Gill & Son, 1919), p. 9.

23) French, "Linguistic Science and Nationalist Revolution," p. 616.

24) Eoin MacNeill, "Why and How the Irish Language Is to Be Preserved," *Irish Ecclesiastical Record*, December 1891.

25) Ibid.

날은 하이드가 1892년 11월 25일 민족문학협회의 설립식에서 “탈 영국화의 필요성”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기회를 잡았다. 이 연설에서 하이드는 잉글랜드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모방하는 아일랜드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며 탈 영국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이드의 주장은 아일랜드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나친 주장이라며 하이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으나 아일랜드어 부흥의 즉각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맥닐은 하이드의 연설을 반색하며 받아들였다. 그는 《게일 저널》에 하이드의 연설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하이드의 의견에 힘을 실었고, 맥닐의 긍정적인 반응에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화답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게일연맹이 결성되었다.²⁶⁾

게일연맹의 조직 이후로 맥닐은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언어와 민족성에 대한 그의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마하피 사태’였다. ‘마하피 사태’는 하이드가 게일연맹 존립 기간 중 최대의 위기로 간주했던 사건으로, 아일랜드 교육법 개정을 둘러싸고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자들과 게일연맹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논쟁이었다. 아일랜드의 교육 제도는 잉글랜드 자유당 의원들이 토지 문제, 종교 문제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 가장 긴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기던 쟁점이었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은 아일랜드의 교육 제도가 지역이나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제국의 제도를 복제하여 아일랜드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잉글랜드 인들이 아일랜드 인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길들이려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맥닐은 아일랜드에서 실행되는 잉글랜드식의 교육 제도를 노예 교육에 비교하며,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식의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었다.²⁷⁾ 이렇듯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제도,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1908년 아일랜드 대학법안(The Irish University Bill)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여 아일랜드 인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국립대학(The National University)을 설

26) Eoin MacNeill, “A Plea and A Plan,” *Gaelic Journal*, March 1893.

27) Padraic Pearse, *Collected Works of Pádraic H. Pearse: Political Writings and Speeches* (Dublin and London: Maunsell & Roberts Ltd., 1922), p. 8.

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아일랜드어를 국립대학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지의 여부를 두고 아일랜드 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

게일연맹의 지도자들은 국립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아일랜드어가 필수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앳킨슨(Robert Atkinson)²⁸⁾과 마하피(John Mahaffy)²⁹⁾ 같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자들은 맹공격을 퍼부으며 아일랜드어는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선정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의 설립을 앞두고 영국 하원에서 소집된 청문회에서 마하피는 ‘켈트어’는 중등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마하피의 이러한 주장은 게일연맹 구성원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맥닐은 새롭게 설립될 아일랜드 국립대학의 입학시험 과목으로 아일랜드어가 필수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맥닐은 ‘국립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잉글랜드적이거나 세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일랜드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독특하고 아일랜드적인 요소는 오직 아일랜드어뿐’이었다.³⁰⁾ 맥닐에게 대학은 단순히 교육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특히나 국립대학이라면 독특한 민족적 성격을 보유하고 민족 문화 양성에 힘써야 하는데, 아일랜드 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어뿐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어 수업을 대학 교육 안으로 포함하는 일은 맥닐에게 있어서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었다.³¹⁾ 이처럼 맥닐은 국립대학을 ‘민족의 대학’으로 완성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민족성의 지표는 종교가 아니라 언어라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언어’를 민족성의 지표로 여긴 맥닐의 주장은 어떤 중요성을

28)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로망스 언어학 교수를 맡고 있던 영국계 아일랜드 인이었다. 그는 매우 활동적인 구 아일랜드어 학자였고, 정부의 임명을 받아 아일랜드 고대법을 편집하였다. 또한 학계를 위하여 렌스터의 서(Book of Leinster)와 레칸의 서(Yellow Book of Lecan)의 복사본을 만들었고, 아일랜드어 사전의 편찬에도 힘썼다.

29) 얼스터 출신의 아일랜드 인으로 헬레니즘 시기 그리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스를 전공한 고전학자였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장직을 역임하였다.

30) Eoin MacNeill, *Irish in th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A Plea for Irish Education* (Dublin: An Cló-Cumann Ltd, 1908), p. i, 9.

31) Ibid., pp. 4-5, 15-16.

지니며 그는 어쩌서 언어를 강조했는가? 중요한 것은 ‘가톨릭’이라는 당대 아일랜드 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 분명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언어의 보존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닐의 태도는 1890년대 아일랜드라는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서 의미를 지닌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식민국가 민족주의에서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 언어였던 것과는 달리,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종교가 민족주의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³²⁾ 이는 1820~30년대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이 이끌었던 가톨릭 해방 운동과 큰 관련이 있다. 오코넬은 가톨릭으로서는 최초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영국 의회에 입성한 아일랜드 인으로,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반세기 동안 아일랜드의 정치 지형을 변모시킨 인물이다. 그는 아일랜드 민족을 ‘가톨릭’으로 규정하고 가톨릭 민중을 동원하여 대중 정치 운동을 이끌었다.³³⁾ 그로 인하여 신교도 엘리트들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 왔던 민족주의 운동은 가톨릭 대중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오코넬이 가톨릭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중을 하나로 규합한 덕분에 1829년 영국 의회에서 가톨릭 해방법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신교도들은 소외되었고 결국 이전부터 아일랜드 사회 내에 존재해왔던 가톨릭과 신교도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1830년대에 신교도 출신의 급진적 민족주의자 토마스 데이비스를 필두로 했던 청년 아일랜드회(Young Irelanders)가 종교가 아닌 언어야말로 아일랜드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주장하였지만, 1848년의 봉기 실패로 인하여 청년 아일랜드회가 해체되면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 하였다.

당대에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던 언어 민족주의자

32) A. C. Hepburn, “Language, Religion and National Identity in Ireland since 1880,”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2001), pp. 197-220.

33) 12세기 이후로 잉글랜드의 간접적 지배를 받아왔던 아일랜드는 1800년 합병법이 통과된 이후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합병법은 잉글랜드의 지배 아래에서 차별 받고 있던 가톨릭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으나, 182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차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가톨릭교도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오코넬은 1828년 클레어 주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 인으로는 최초로 웨스트민스터에 입성해 가톨릭 해방 운동 및 합병 철폐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들은 맥닐 외에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 중 하이드와 더불어 언어 민족주의의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한 모란이 있었다. 그러나 모란은 아일랜드성의 중심이 가톨릭이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맥닐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³⁴⁾ 그는 ‘가톨릭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Catholic Gaelic Revival)’을 추구하였으며, 가톨릭 신부들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1902년경에는 가톨릭 협회의 열렬한 옹호자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³⁵⁾ 또한 모란은 오코넬이 종교만을 아일랜드성의 중심으로 내세우며 아일랜드어를 경시하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를 ‘가톨릭의 해방자’로 인식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으며 아일랜드성을 가톨릭과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였다.³⁶⁾ 모란에게 있어 아일랜드 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언어가 아니라 종교였으며, 그가 구상하던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은 가톨릭 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아일랜드어란 가톨릭교도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던 것이다.

모란과 달리 맥닐은 언어 민족주의 운동을 종교로부터 분리시켰고, 가톨릭은 물론 신교도들 역시 활발하게 언어 부흥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모란에게 아일랜드어가 가톨릭이 전유해야 할 아일랜드성에 해당했다면, 맥닐에게는 언어야말로 종교로는 포괄할 수 없는 모든 아일랜드 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정체성이었다. 맥닐이 언어를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 수단으로 삼은 것은 그가 볼 때 당시 가톨릭과 신교도로 분열되어 첨예하게 대립하던 아일랜드 인들을 하나로 묶어줄만한 수단이 언어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맥닐이 신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얼스터 지역의 글렌암 지역 출생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얼스터는 아일랜드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튜더 시대부터 비교적 많은 수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신교도들이 이주 정책에 따라 이곳에 정착하였다. 맥닐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19세기 말이 되면 얼스터는 적극적으로 잉글랜드의 정책을 옹호하는 지역이 되어 있었고, 갈수록 자치를 추구하는 다른 지역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얼스터 인이자 민족주의자였던 맥닐로서는 이런

34) Moran, *The Philosophy of Irish Ireland*, p. xii.

35) Ibid.

36) Ibid., p. xv, xxiv.

갈등을 봉합하고 얼스터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맥닐은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나 ‘얼스터인’으로서 발언하면서 “얼스터는 아일랜드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는다”³⁷⁾고 주장하였고, 얼스터야말로 1798년의 대봉기와 1848년의 반란에서 잉글랜드에 대한 저항에 앞장선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³⁸⁾

‘얼스터인’이라는 명칭이 아일랜드의 한 지역이 아닌 신교도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게 된 시대에 여전히 맥닐이 얼스터를 아일랜드 안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일랜드가 지닌 역사적 기억 때문이었다. 오코넬의 출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이끌었던 계층은 가톨릭이 아니라 신교도 영국계 아일랜드 인들이었다.³⁹⁾ 얼스터 신교도들은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아일랜드 민족성’을 발전시켰으며, 1791년에는 얼스터의 벨파스트에 통일아일랜드인(United Irishmen)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잉글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독립을 주장한 1798년 봉기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봉기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울프 톤(Wolfe Tone)을 위시한 신교도들이었으며, 이후 1848년에 다시금 잉글랜드에 대항한 봉기가 발생했을 때 전면에 나선 것 역시 신교도 중심의 청년 아일랜드회였다. 맥닐은 항상 ‘얼스터의 기억’을 강조하였고, 얼스터가 하나의 아일랜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신뢰했다. “나는 얼스터 인이고 얼스터 인으로서 발언하겠다”⁴⁰⁾고 주장했던 맥닐에게 있어서 얼스터를 아일랜드의 자치 운동 속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민족성의 지표로 종교가 아닌 다른 특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게는 얼스터와 아일랜드 남부의 갈등을 극대화시킨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후천적으로 습득 가능한 언어야말로 포괄적으로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했던 것이다. 그는 특히 대중을 상대로 아일랜드어를 교육함으로써 이들에게 아일랜드 인으로서의 정

37) *The Irish Volunteer*, 11 July 1914.

38) *The Irish Volunteer*, 9 May 1914.

39)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p. 72.

40) *The Irish Volunteer*, 11 July 1914.

체성을 심어주고자 하였다.⁴¹⁾

2. 게일연맹의 구상과 실현에서 대중의 중요성

게일연맹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손꼽히게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단체였다. 첫 몇 년간은 성장세가 미미했으나 1900년 이후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창립 10주년인 1903년에는 전국에 400개 이상의 지부와 50,000명 가량의 회원을 보유할 정도의 큰 단체가 되었다.⁴²⁾ 게일연맹의 영향력은 아일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영국과 같이 아일랜드 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1895년부터는 미국으로부터 지부 설립 문의가 들어왔고, 잉글랜드에서도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지역에 지부가 생길 정도로 게일연맹은 성공적인 단체였다.⁴³⁾ 게일연맹의 회원수는 당대에 존재하던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큰 숫자였고, 이보다 많은 숫자를 보유한 단체는 아일랜드 의회당의 존립기반이자 지역 정치의 중심이었던 통합아일랜드연맹(United Irish League) 정도 밖에는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게일연맹이 이렇게 수적으로 큰 성장을 보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게일연맹은 개방성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 단체였다. 게일연맹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고 탈퇴 역시 자유로웠으며, 정치색과 종교, 성별과 나이를 모두 초월하여 아일랜드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⁴⁴⁾ 이는 당대의 다른 대규모 단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었다. 게일연맹과 달리 통합아일랜드연맹은 의회당원이자 가톨릭으로서의 정체성을 필요로 하였고, 또 다른 대규모 단체인 고대아일랜드단(Ancient Order of Hibernians)은 가톨릭 단체였으며, 게일체육협회(Gaelic Athletic Association)와 형제단 역시 가톨릭교도로 가입

41)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 86.

42) Janet Dunleavy and Gareth Dunleavy, *Douglas Hyde: A Maker of Modern Ire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 236.

43) Tierney, *Eoin MacNeill*, p. 30.

44) Róna Nic Congáil, "Life and the Dream: Utopian Impulses Within the Irish Language Revival," *Utopian Studies*, Vol. 23, No. 2 (2012), p. 432.

조건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게일연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언어 협회들과는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성직자나 귀족 출신의 학자들이 포진되어 있던 아일랜드 고고학협회, 켈트협회, 어시안협회 등의 언어 단체들과는 달리 게일연맹의 구성원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중간계급이나 하층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⁴⁵⁾ 문어로서의 아일랜드어의 ‘보존’보다도 구어로서의 아일랜드어의 상용을 추구했던 게일연맹은 엘리트층이 아닌 대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게일연맹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맥닐의 ‘대중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03년부터 게일연맹 기관지의 편집장직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피어스는 “하이드가 게일연맹을 필두로 전개된 언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었다면 언어 민족주의 운동의 철학을 확립한 사람은 맥닐”⁴⁶⁾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피어스의 발언처럼 하이드가 연설을 통하여 탈 영국화의 외침을 만들어 냈다면 맥닐은 로스커먼에 거주하고 있던 하이드를 대신하여 더블린에 머물며 전체적인 게일연맹의 업무를 총괄했다. 허친슨의 표현대로 맥닐은 연맹의 ‘건설자, 창시자이자 철학자’였던 것이다.⁴⁷⁾ 이런 맥닐이 언어 협회의 운영 방법으로 차용한 것은 바로 다비트(Michael Davitt)의 대중 동원 방식이었다.⁴⁸⁾ 다비트는 188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공화주의자로, 아일랜드 토지연맹을 설립하여 잉글랜드 부재지주층에 대항하는 토지전쟁을 적극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형제단 소속의 급진적인 분리주의자였으나 온건한 의회주의적 자치론자였던 파넬과 연계하였고, 파넬에게 토지연맹의 의장직을 제안하여 수락을 얻어냈다.⁴⁹⁾ 이 토지연맹에는 온건한 자치론자에서 극단적인 공화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비

45) Timothy McMahon, *Grand Opportunity: the Gaelic Revival and Irish Society, 1893-1910*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8), pp. 94-126.

46)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 92.

47) John Hutchinson, *The Dynamics of Cultural Nationalism: the Gaelic Revival and the Creation of the Irish Nation State* (London: Allen & Unwin), p. 121.

48) Martin, *The Scholar Revolutionary*, p. 79.

49) 테오 W. 무디·프랭크 X. 마틴, 박일우 역, 『아일랜드의 역사: 도전과 투쟁, 부활과 희망의 대서사시』 (한울, 2009), p. 324.

트는 소작농 다수의 힘에 의존하여 무력 투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잉글랜드에 대항한 토지전쟁을 전개하였다. 다비트의 대중 동원 방식은 맥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맥닐은 오그로우니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아일랜드어의 부활에 있어서 다비트의 방식을 차용하는 것에 호의적’⁵⁰⁾이었다.

대중을 중요시하는 맥닐의 태도는 이미 게일연맹 설립 이전부터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는 탈 영국화에 관한 하이드의 연설에 동조하려는 의도로 게일 연맹에 게재했던 <계획>이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하이드가 연설을 통하여 당대 아일랜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언어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 맥닐은 저술을 통하여 게일연맹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맥닐은 <계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언어 협회의 모습에 대하여 밝혔으며, 아일랜드어가 사어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맥닐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점은 이제껏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은 이제까지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어 왔다. 그 어떤 언어도 책을 통한 교육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일랜드의 특별한 상황들이 단순히 책을 통한 교육으로만 아일랜드어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무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다른 추가적인 수단들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⁵¹⁾

두 번째로 그는 대중들 사이에 아일랜드어에 대한 잠재적인 열정은 분명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관심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일랜드어에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맥닐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일반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였다.⁵²⁾ 맥닐에 따르면 이전까지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와 관련된 운동들은 교육 받은 중간 계

50)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 79.

51) *Gaelic Journal*, March 1893.

52) Ibid.

급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며, 하층민들은 아일랜드어 보존 운동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는 언어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살아남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언어 협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아일랜드어가 대중의 가정에서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 즉 일반 민중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맥닐은 언어 교육이 교구를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블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일랜드어를 배우기 위해 힘들여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블린에 중앙 기구를 두되 협회의 주요 활동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순히 연설만으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⁵³⁾

언어 협회에 대한 맥닐의 구상은 게일연맹에서 실현되었다. 게일연맹은 맥닐이 주장했던 대로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그 결과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협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간 계급이나 하층민들의 상당수가 게일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게일연맹 이전에 존재했던 언어 협회들에서는 지도자들의 직책이 성직자나 대학 교수 같은 엘리트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게일연맹의 지도자들은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통하여 계급적 상승을 이룬 상층 중간 계급이 비교적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⁵⁴⁾ 지도자 외의 일반 회원들의 경우,

53) Ibid.

54) Royal Society of Antiquaries of Ireland, "The Celtic Society, or Irish Historical and Literary Association", *Transactions of the Kilkenny Archaeological Society*, Vol. 1, No. 2 (1850), pp. 1-12; McMahon, *Grand Opportunity*, pp. 93-94; Timothy McMahon, "'All Creeds and All Classes'? Just Who Made Up the Gaelic League?," *Eire-Ireland: a Journal of Irish Studies*, Vol. 34, No. 3-4 (2002), pp. 118-168. 게일연맹 회원들의 계급에 대하여 연구한 가빈(Tom Garvin)과 허친슨은 신분상승에 실패하여 좌절한 중간 계급이 게일연맹의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하였다. 더블린 지부를 중심으로 연구한 가빈은 게일연맹이 "중간 계급의 학자들과 예술애호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후 하층 중간 계급으로 이루어진 도당이 1913년 연맹 내의 권력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허친슨 역시 게일연맹이 중간 계급과 하층 계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가빈과 허친슨의 분석을 검증하고자 맥마혼은 더블린, 코크, 벨파스트, 리머릭, 데리 등 여러 지역 지부의 회원 명부를 토대로 게일연맹의 지도자들과 일반 회원들의 계급, 성별 및

대부분의 지부에서 중간 계급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으며, 공장 노동자나 점원 같은 노동 계급도 상당한 비율로 존재했다.⁵⁵⁾ 또한 게일연맹은 맥닐의 구상대로 지역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하여 더블린에 중앙 기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아일랜드어 교육이 가능한 선생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게일연맹은 전성기에 550개 이상의 지부를 아일랜드 전역에 보유하고 있었고, 다양한 연례행사나 축제들이 지방에 위치한 지부들의 주도로 개최되었다.⁵⁶⁾ 책을 통한 교육 외의 활동적인 수단들이 아일랜드어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맥닐의 주장을 따라 게일연맹에서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댄스, 축제, 시 암송과 같은 다양한 오락 활동을 장려하기도 하였다.⁵⁷⁾

게일연맹 설립 이후로도 대중을 중시하는 맥닐의 태도는 ‘아일랜드 국립대학 내 아일랜드어 필수화 운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고등 교육에서조차 “일반 아일랜드 대중의 애정 어린 충성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⁵⁸⁾고 밝히며 아일랜드 국립대학이 엘리트 교육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일랜드어가 교육받은 학생들이 아니라 대중에 의하여 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위적 형태의 학술적 아일랜드어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⁵⁹⁾ 맥닐에게 “아일랜드어의 미래는 (학문으로서 아일랜드어가 연구되는 장소인) 트리니티 칼리지나 아니라 (아일랜드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게일타하트에 있는 것”⁶⁰⁾이었다.

게일연맹의 협회로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어 사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따라서 게일연맹은 결과적으로는 구어로서의 아이

종교 등을 분석하였다. 그는 더블린, 코크, 벨파스트 지역 등지에서 대체로 55% 이상의 회원들이 가게 점원, 교사, 하급 공무원 등과 같은 하층 중간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5) McMahan, “All Creeds and All Classes,” pp. 118-168.

56) *Gaelic Journal*, March 1893.

57) McMahan, *Grand Opportunity*, p. 130.

58) MacNeill, *Irish in th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p. 4.

59)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p. 9-10.

60) Ibid.

랜드어 보존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미 사어가 되어가고 있던 아일랜드어를 되살려 모두가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게일연맹의 진정한 역사적 중요성은 ‘아일랜드어의 보존’이 아니라 아일랜드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미친 영향에 있었다. 게일연맹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쳐주는 조직이 아니라 언어를 배움으로써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해나가는 과정이었다. 피어스의 말처럼 게일연맹은 그 안에서 “계급, 종교, 민족주의적 성향을 초월한 모든 이들이 공통의 애국심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소로 기능”⁶¹⁾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언어를 습득하였는지의 여부보다는 아일랜드어를 모국어로 여긴다는 관념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게일연맹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일랜드 인들은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되었고, 정치적인 독립보다도 문화적인 정체성의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일연맹의 정신은 이후의 민족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19년 비밀무장단체인 아일랜드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을 창설하고 게릴라 전투를 발전시켜 잉글랜드에 효과적으로 저항한 마이클 콜린스와 독립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최장기간 대통령직을 역임하였던 데 발레라를 비롯하여 1916년의 부활절 봉기에 참여했던 많은 지도자들 및 1921년 자유국 성립 당시 각료의 대다수가 젊은 시절 게일연맹 활동을 경험해보았다는 사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아일랜드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서 게일연맹이 담당한 역할을 보여준다.⁶²⁾ 크롤리의 지적대로 게일연맹은 “민족주의 운동에서 언어를 중요한 요소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주요 조직이었던 것이다.⁶³⁾

61) Patrick Pearse, “For or Against the English Connection,” *The Irish Volunteer*, 19 September 1914.

62) 부활절 봉기에 참여하여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서에 서명했던 피어스, 코놀리(James Connolly), 클라크, 맥디어마다(Sean MacDiarmada), 맥도나(Thomas MacDonagh), 캔트(Eamonn Ceannt), 플런켓(Joseph Plunkett)의 7명 중 5명(피어스, 맥디어마다, 맥도나, 캔트, 플런켓)이 게일연맹의 구성원이었다. 아일랜드 자유국 내각에서는 회장이었던 맥날이 교육부 장관직을 역임하였으며, 게일연맹의 구성원이었던 멀카히(Richard Mulcahy)와 블라이스(Ernest Blythe)가 각각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맡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3) Tony Crowley, *War of Words: The Politics of Language in Ireland, 1537-200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45.

언어 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맥닐의 태도는 이후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맥닐은 파넬의 사망 이후 분열되어 있던 아일랜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다시 정치의 주체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파넬 사후 의회당을 통합하여 집권한 레드몬드에게는 신교도와 가톨릭을 통합하여 아일랜드를 하나로 규합하는 데 성공한 파넬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었다. 다비트와의 연합을 통해 토지연맹의 의장이 됨으로써 언제든지 자치운동에 무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중을 확보해 놓았던 파넬과 달리 레드몬드는 대중의 힘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의회적 수단을 통한 자치법의 통과만을 추구하였다. 이제 아일랜드 인들은 의회당의 투표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자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맥닐은 그런 아일랜드 대중이 ‘아일랜드어의 부흥’이라는 기치 하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고, 이들이 다시금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계일연맹은 특히 ‘하나된 아일랜드인’을 구상함으로써 이들이 함께 무쳐 투쟁할 수 있는 단체인 아일랜드 의용군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의용군의 설립과 성공은 계일연맹이 다져 놓은 기반 덕에 가능한 것이었다. 피어스는 의용군 설립 직후 계일연맹이 아일랜드 인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해주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의용군의 설립이 가능했다고 밝혔으며, “의용군 운동은 계일연맹에 의하여 시작된 발전의 두 번째 단계”⁶⁴⁾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맥닐 역시 1914년 10월 1일에 열린 계일연맹 총회의에서 계일연맹과 의용군의 연속적인 관계에 대하여 천명한 바 있었다.⁶⁵⁾ 이처럼 계일연맹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로 결집된 대중은 아일랜드 인의 정체성을 보유한 채 ‘아일랜드 의용군’에 편입됨으로써 직접적이며 대중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64) *The Irish Volunteer*, 19 September 1914.

65) *The Irish Volunteer*, 3 October 1914.

Ⅲ. 맥닐과 아일랜드 의용군 활동

아일랜드 자치법안은 1886년과 1893년 두 차례 영국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마침내 1912년에 상정된 3차 자치법안이 1913년 1월 의회를 통과하였다. 자치법은 1914년부터 아일랜드 전역에서 실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치법의 통과는 신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얼스터 지역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자치가 시행된다면 다수인 가톨릭에 의하여 신교도가 억압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무력으로라도 영국과의 합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목적에서 아일랜드 통합당(Irish Unionist Parliamentary Party)의 의장인 카슨을 필두로 얼스터 의용군(Ulster Volunteers)이 설립되었다. 아일랜드의 자치에 반대하던 보수당은 이런 얼스터의 움직임을 장려하였고, 의회당의 자치 정책을 지지하고 있던 아일랜드 민중들 사이에서는 의회적인 수단만을 통해서 자치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 아일랜드 의용군의 설립 과정

얼스터의 무장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얼스터에서 무력을 동원한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아일랜드의 자치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레드몬드의 집권 하에서 농촌의 토지 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소요가 줄어들고 무장테러조직인 형제단의 규모가 축소된 것 역시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자치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톨릭이 대다수인 아일랜드 남부 지역에서 자치법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과 달리, 신교도가 다수였던 얼스터 지역에서는 자치법이 시행될 경우 자신들이 수적으로 불리하므로 권력을 잡은 가톨릭교도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다. 이들은 자치법의 통과를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며, 결국은 무력

을 통해서라도 자치법의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자치법이 제국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던 보수당원들은 공개적으로 얼스터 의용군을 지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자유당원들의 경우 국내 신교도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얼스터에서의 소요를 탄압하지 못했다. 얼스터의 쿠라 지역에서는 얼스터 의용군을 통제하라는 명령에 상급 군인들이 불복한 봉기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아일랜드 남부에서는 많은 이들이 얼스터와 잉글랜드가 결탁했다고 믿게 되었고, 이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급진화로 이어졌다.

1912년 3월 31일 더블린에서 개최된 자치법 집회에서 이런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상당수의 아일랜드 인들이 결집했던 이 집회에서는 자치법을 지지하는 다양한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연설이 있었다. 레드몬드가 자신의 연설에서 의회당을 믿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던 것과 달리 피어스와 맥닐은 자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두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잉글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자치법이 이번에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의 민중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⁶⁶⁾ 맥닐은 “우리는 자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서두로 연설을 시작하여, 아일랜드 전역의 젊은이들은 주권을 지닌 민족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만약 우리가 최후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잉글랜드 인들에게 나쁜 결과가 될 것”⁶⁷⁾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일랜드의 청년층이 고유의 관습, 언어, 권리를 보유한 민족 정부의 설립을 위하여 싸울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런 맥닐의 연설은 무장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주장들보다 훨씬 강경한 것이었으며, 이미 1912년에 아일랜드의 청년 민족주의자들이 입헌주의와 무력 사이의 기로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⁶⁸⁾

1913년, 얼스터 의용군의 공식적인 설립은 이런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

66)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 107.

67) Ibid.

68) Charles Townshend, *Easter 1916: The Irish Rebellion* (Chicago: Ivan R. Dee, 2006), p. 38.

할을 하였다. 이전까지 의회당에 대한 굳은 믿음을 보이던 아일랜드의 대중은 동요하였고, 청년층은 분노를 터뜨리며 남부에서도 무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맥닐은 얼스터 의용군의 설립 소식을 듣자마자 게일연맹의 기관지에 <북부에서 의용군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빠르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는 놀랍게도 얼스터 의용군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자치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얼스터의 의용군 설립을 지지하였다. 맥닐에 의하면 얼스터 의용군의 설립은 자치법의 시행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잉글랜드의 명령에 반하여 얼스터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스스로 무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치 행위에 해당했다.⁶⁹⁾ 또한 그는 얼스터의 움직임에 영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얼스터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도 ‘제국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시민군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설파하였다. 맥닐에 의하면 이제 “제국에 남은 유일한 선택은 아일랜드와 자치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아일랜드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두는 것 뿐”이었다.⁷⁰⁾

이런 맥닐의 주장은 당시 얼스터 의용군 사태를 바라보며 아일랜드 남부에서 의용군을 설립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아일랜드 형제단의 생각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형제단의 더블린·렌스터 지부 회장이었던 홉슨(Bulmer Hobson)은 얼스터 의용군의 설립과 이에 대한 영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다.⁷¹⁾ 홉슨은 얼스터의 의용군 운동이 ‘아일랜드 인들로 하여금 무기력에서 벗어나도록 한 사건’이라고 여겼으며, 그 덕분에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⁷²⁾ 그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홉슨은 이미 1913년 7월에 형제단의 더블린 본부 회의에서 더블린에서도 아일랜드 의용군 운동을 시작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용군이 시작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69) Eoin MacNeill, “The North Begins,” *An Claidheamh Soluis*, 1 November 1913.

70) Ibid.

71) Bulmer Hobson, *Ireland Yesterday and Tomorrow* (Tralee: Anvil Books, 1968), p. 42.

72) Ibid., p. 43.

위해서는 지금부터 형제단의 구성원들이 군사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었다. 흡슨의 지시 하에 1913년 7월부터 더블린에서 형제단들의 비밀 훈련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의용군의 모집이 시작되었을 때 장교 역할을 할 만한 인재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

형제단원들은 1913년 10월에 아일랜드 남부에서도 의용군 모집을 시작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중 운동을 이끌만한 비형제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 때 마침 맥닐의 기사가 게일연맹 기관지에 게재되었고, 형제단은 그를 적절한 인물로 낙점했다.⁷³⁾ 흡슨은 맥닐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며, 분쟁을 조절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용군의 대표로 세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맥닐은 이미 게일연맹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고, 대학 교수로서의 명망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는 영국 정부에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군사적 조직의 지도자가 된다면 의용군에 대한 경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⁷⁴⁾ 흡슨은 민족주의자 오라일리를 통하여 맥닐에게 아일랜드 의용군의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맥닐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마침내 아일랜드 남부에서도 의용군이 창설되었다.

형제단 출신으로 의용군에 가입하였던 린치(Diarmuid Lynch)는 의용군의 조직은 형제단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맥닐의 영향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의용군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맥닐이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맥닐의 구상은 의용군 설립 당시의 연설과 저술을 통하여 잘 드러나는데, 의용군의 설립 과정에서 그가 중요시했던 것은 민족적 통합이었다. 게일연맹이 모든 계급, 종파와 정치 계층을 포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의용군 역시 아일랜드 인이라면 그 어떤 규제도 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했다. 실제로 맥닐은 의용군 설립 기념 연설에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신교

73) Ibid.

74) Ibid., p. 44.

75) Diarmuid Lynch, *The I.R.B. and the 1916 Insurrection: a Record of the Preparations for the Rising, with Comments on Published Works Relating thereto, and a Report on Operations in the G.P.O. Garrison Area during Easter Week, 1916* (Cork: Mercier Press, 1957)

도 역시 의용군의 창설 준비에 참여하였으며, 아일랜드 의용군의 구성에 그 어떤 종교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 건강한 아일랜드 인이라면 누구나 의용군에 등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용군의 등록을 촉구하였다.⁷⁶⁾

맥닐이 주축이 되어 작성된 의용군 성명서에서도 아일랜드 형제단과는 궤를 달리 하는 맥닐의 신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의용군의 설립 목적을 단호하게 표명하였는데, 이 성명서에 의하면 아일랜드 의용군의 목적은 ‘모든’ 아일랜드 인들에게 공통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⁷⁷⁾ 가톨릭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형제단과는 달리 의용군은 종교나 정치, 사회적 지위 및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아일랜드 인들에게 열려있었다.⁷⁸⁾

1914년 10월 10일의 임시 위원회 특별 회의에서 통과된 아일랜드 의용군의 정강에서는 아일랜드 의용군의 설립 목적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며, 모든 아일랜드 인들을 포함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다시 한 번 공표되었다.

1. 모든 아일랜드 인들에게 공통되는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2. 아일랜드 민족 정부가 설립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일랜드 의용군을 훈련시키고 훈육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 모든 종파와 모든 정당 및 계급의 아일랜드 인을 하나로 통합한다.⁷⁹⁾

아일랜드에 존재하는 모든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하여 통합된 아일랜드를 구성하고자 했던 맥닐의 노력은 의용군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30명으로 구성되었던 의용군 임시 위원회 내에는 12명의 형제단원들이 있었으며, 아일랜드 의회당의 당원들과 의회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가톨릭 집단인 고대 아일랜드단의 회원들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의회당이 추진하던 ‘입법적 수단을 통한 자치의 달성’에 불

76) F. X. Martin (ed.), *The Irish Volunteers, 1913-1915: Recollections and Documents* (Dublin: J. Duffy, 1963), pp. 110-113.

77) Manifesto of the Irish Volunteers

78) Ibid.

79) Martin, *The Irish Volunteers*, p. 159.

만을 품고 일어난 군사적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그 의회당 당원들 및 의회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닐을 포함하여 오라일리, 캔트, 피츠기번(John Fitzgibbon) 등 상당수의 게일연맹과 신페인의 회원들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문화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당시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던 대부분의 분파들이 의용군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의용군 활동과 관련하여 맥닐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가 아일랜드 남부의 통합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얼스터와의 연계, 나아가 전 아일랜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얼스터 의용군의 설립은 사실상 잉글랜드에 대항한 ‘자치 행위’⁸⁰⁾라고 규정했던 맥닐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얼스터 의용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카슨은 잉글랜드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맥닐의 꾸준한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맥닐이 카슨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일랜드 의용군의 설립이 얼스터와의 분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처음 의용군이 설립될 당시 아일랜드 남부에서 설립된 의용군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일랜드 의용군(The Irish Volunteer)이었는데, 이는 훗날 레드몬드가 맥닐과의 분열 이후 새롭게 설립했던 의용군의 이름인 ‘민족’ 의용군(The Irish National Volunteer)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맥닐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아일랜드 의용군이 아일랜드 전역을 대표하는 뉘앙스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얼스터의 의용군과 남부의 의용군이 서로 대치되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조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민족’ 의용군이라는 표현은 지양하였다.⁸¹⁾ 맥닐은 두 의용군 모두 잉글랜드로부터의 자치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하나로 연합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자 하였다.

얼스터와의 통합 의지는 맥닐이 지속적으로 잉글랜드를 ‘적’으로 상정한 부분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서술에서 잉글랜드에 대한 적대감은 흔한 것이었지만 맥닐의 경우 강압적인 지배보다도 잉

80) Eoin MacNeill, “The North Begins,” *An Claidheamh Soluis*, 1 November 1913.

81)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 152.

글랜드가 아일랜드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했다. 그는 얼스터 신교도들의 태도는 잉글랜드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아일랜드 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잉글랜드가 일부러 종교적 분열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⁸²⁾ 그는 여러 연설에서 자신이 ‘얼스터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얼스터 인들은 아일랜드로부터 분열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⁸³⁾고 주장하였으며, 얼스터 인들에게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일랜드를 위해 싸우고 피를 흘리라”⁸⁴⁾며 독려하였다. 그가 말했던 얼스터의 조상들은 18세기 말 의용군에 참여하여 1798년의 대봉기에서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다. 그는 불과 몇 십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얼스터가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의 봉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지역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사태는 영국이 종교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개했다.⁸⁵⁾ 맥닐에 의하면 영국은 지속적으로 가톨릭이 신교도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렸고, 종교적 갈등을 촉발시키면서 아일랜드를 분열시켜 통치하려는 전략을 고수하였다.⁸⁶⁾ 카슨은 잉글랜드 정치인들의 도구일 뿐이었으며, 따라서 카슨을 필두로 한 얼스터 지역은 잉글랜드의 술수에서 벗어나 아일랜드의 다른 지역들과 연대를 해야만 했다. 그는 아일랜드가 자치를 이룩한다면 얼스터가 박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치법의 통과 이후 얼스터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⁸⁷⁾

이렇듯 아일랜드 전역을 통합하려던 맥닐은 급진적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았던 의회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열린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의회당은 충분히 자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용군은 의회당의 결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⁸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가 적으로 상정한 것은 잉글랜드의 정당이었다. 그는 “헨리 2세 때부터 오늘까지 이어

82) Eoin MacNeill, *The Ulster Difficulty* (1920), p. 5.

83) *The Irish Volunteer*, 9 May 1914.

84) Ibid.

85) MacNeill, *The Ulster Difficulty*, pp. 3-5.

86) Ibid., pp. 6-8.

87) Ibid., p. 24.

88) *The Irish Volunteer*, 9 May 1914..

지는 아일랜드의 적”⁸⁹⁾으로 잉글랜드의 정당을 들었다. 이는 아일랜드 인이라면 누구나 포용하는 대신 잉글랜드라는 공통의 적을 분명히 상정하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맥닐과는 달리 아일랜드 의용군이 설립될 당시 레드몬드와 딜런을 비롯한 의회당의 주요 인물들은 의용군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레드몬드는 공식적으로 의용군에 적대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흡슨은 그와의 개인적인 교류에서 의용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읽어냈다. 의회당의 중요 당원인 헤이즐턴(Richard Hazelton) 역시 의용군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었다.⁹⁰⁾ 반면 맥닐은 아일랜드 정치에서 의회당이 지닌 절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의용군의 목적이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영국 정부와 의회당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맥닐은 레드몬드와 친분이 있는 호건에게 자신은 레드몬드의 ‘변함없는 지지자’이며, 의용군의 창설이 의회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달라는 뜻을 밝힌 바 있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⁹¹⁾

다양한 아일랜드 인들을 포함하고 비정파적, 비종파적 노선을 유지하려는 노력 덕분에 아일랜드 의용군은 큰 인기를 얻었고, 공식적으로 의용군 활동이 시작되었던 1913년 11월 25일에 이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용군에 자원하였다. 이후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설립 6개월 만에 의용군은 100,000~150,000명 정도의 큰 규모로 성장했다.⁹²⁾ 의용군의 모집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일랜드인의 다수가 의용군에 가입하게 되면서 의회당원들도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맥닐은 아일랜드 민중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레드몬드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레드몬드의 적극적인 관심에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레드몬드와의 대화는 맥닐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맥닐은 레드몬드가 의용군을 지원해주기를 바

89) Ibid.

90) Hobson, *Ireland Yesterday and Tomorrow*, pp. 45-46.

91) Tierney, *Eoin MacNeill*, p. 126.

92) Ibid., p. 124.

렸으나 레드몬드가 계획하고 있던 것은 의용군의 장악이었다.⁹³⁾

레드몬드는 의용군 위원회에 자신이 임명하는 25인을 대표로 앉힐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 의용군에 반하는 새로운 의용군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1914년 6월 9일에 발송하였다. 사실상 의용군 위원회는 이미 모든 당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차있었고, 충분한 숫자의 의회당 지지자들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의용군을 의회당이 차지하겠다는 소리와 다를 것이 없었다.⁹⁴⁾ 맥닐은 레드몬드의 요구가 모든 정파와 종파를 초월하는 의용군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나 레드몬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회의가 개최되었고, 의용군 위원회는 반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갈등했다. 회장인 맥닐은 레드몬드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레드몬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입장을 택하였다. 레드몬드가 만약 새로운 의용군을 만든다면 현재 아일랜드 의용군에 소속되어 있는 다수가 그의 편으로 돌아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의회당은 여전히 아일랜드의 제 1정당이었고, 레드몬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매우 큰 신뢰를 얻고 있는 대표였다. 맥닐은 의용군이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레드몬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의 민족운동이 분열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확신하였다.⁹⁵⁾ 결국 레드몬드가 선정한 25인의 대표단이 의용군의 위원회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은 그리 오래 가지 못 했다.

1912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1914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던 자치법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레드몬드는 적극적인 참전이야말로 아일랜드인들의 자치 능력을 잉글랜드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그는 아일랜드가 자치를 얻게 된다면 잉글랜드에 적대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처럼 잉글랜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9월

93) Parliamentary Papers, 18 October 1916, Vol. 86, c. 678.

94) Hobson, *Ireland Yesterday and Tomorrow*, p. 50.

95) F. X. Martin and Eoin MacNeill, "Eoin MacNeill on the 1916 Rising," *Irish Historical Studies*, Vol. 12, No. 47 (March, 1961), pp. 226-271.

20일에 아일랜드 의용군이 영국군에 자원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것은 레드몬드의 명백한 실수였다. 의용군이 제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연설은 의용군 내 민족주의자들의 분노를 촉발했고, 맥닐은 곧바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레드몬드를 비롯한 의회당원들을 전부 탄핵하는 데 이르렀다. 맥닐이 직접 작성하고 위원회의 20명이 날인을 한 탄핵장에서는 아일랜드 의용군의 목적이 '아일랜드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인데, 레드몬드는 잉글랜드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의용군의 의무라고 주장했다'며 비난했다. 레드몬드의 연설은 의용군 임시 위원회 및 아일랜드 대중과의 의논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레드몬드는 더 이상 아일랜드 의용군의 행정과 지도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맥닐을 비롯한 의용군 위원회 다수의 입장이었다.⁹⁶⁾ 아일랜드 의용군으로부터 쫓겨난 레드몬드는 곧바로 민족 의용군을 창설하였고, 아일랜드 의용군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약 150,000명이 레드몬드를 따라가 버려 3000~10,000명 가량의 소수의 구성원들만이 아일랜드 의용군에 남아 있었다.⁹⁷⁾

레드몬드 일파가 아일랜드 의용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의용군 내에서 모든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유국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살아남은 의용군은 소수파였던 맥닐의 의용군이었다. 대다수의 장교들을 포함하여 급진주의적인 성향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아일랜드 의용군에 남아 있었던 반면, 민족 의용군은 초반의 선전과는 달리 갈수록 지지부진했다. 1914년 11월의 경찰 보고에 따르면 민족 의용군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1915년 2월이 되면 명목상 142,000을 약간 넘는 인원이 남아있었다. 4월이 되면 민족 의용군의 숫자는 134,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무관심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9월에 경찰은 민족 의용군의 숫자를 117,752명으로 추산했다.⁹⁸⁾ 반대로 아일랜드 의용군은 계속해서 성장하였으며, 맥닐의 의용군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

96) Martin, *The Irish Volunteers, 1913-1915*, pp. 152-155.

97) R. F. Foster, *Modern Ireland, 1600-1972* (New York: Penguin Books, 1989), p. 473.

98) Townshend, *Easter 1916*, p. 71.

아오면서 아일랜드 의용군은 1916년 초가 되면 매주 6명의 신규 자원자를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갔다.⁹⁹⁾ 아일랜드 의용군은 부활절 봉기의 발발 후에도 살아남았으며, 자유국의 성립 이후로는 아일랜드의 공식 군대로 편입되었다.

여러 분파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맥닐의 원칙은 관철되었고 성과를 낳았다. 그는 얼스터를 포함한 아일랜드 전역의 아일랜드 인들을 종교, 정치적 성향, 계급, 성별과 무관하게 하나의 운동 안으로 포함하려고 하였으며, '하나'로 모인 대중이 아일랜드 인으로서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자치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레드몬드와의 분열은 이러한 통합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맥닐은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하나의 아일랜드'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잉글랜드에 협력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배제하였다. 그리고 이런 맥닐의 민족 통합에 대한 믿음은 이후 부활절 봉기에 대한 철회 선언으로 이어졌다.

2. 부활절 봉기에 대한 맥닐의 태도

맥닐의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용군 내부의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었다. 위원회의 과반수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급진주의적인 형제단의 구성원들은 민족주의 운동의 지향점에 있어서 맥닐과 결코 합치될 수 없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닐은 의용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용군의 의무는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선언하였다.¹⁰⁰⁾ 당시 피어스나 플런켓 같은 형제단의 일부 급진적인 구성원들은 언제든 영국의 위기를 기회로 노려 봉기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맥닐은 명확하게 아일랜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915년 아일랜드 인들 다수가 원했던 것은 의회적 수단을 통한 자치였지 군사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다. 1918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선거에서

99) Hobson, *Ireland Yesterday and Tomorrow*, p. 58.

100) Martin, *The Irish Volunteers, 1913-1915*, pp. 98-101.

독립을 기치로 내세운 신 페인이 자치 노선을 유지한 아일랜드 의회당을 꺾고 아일랜드 내 제 1정당이 되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맥닐은 아일랜드 내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자신들은 아일랜드를 대표하여 봉기를 일으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용군이 그 어떤 공격이나 정복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였다.¹⁰¹⁾

맥닐은 의용군을 설립하던 시점에 이미 의용군 내의 급진주의자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형제단의 구성원들이 의용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온건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접촉해 왔다는 점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¹⁰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흡슨의 의용군 설립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카슨의 얼스터 의용군 때문이었다. 그는 형제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회장직을 맡아 급진주의적인 형제단원들과 자치를 지향하는 의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의용군을 유지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¹⁰³⁾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형제단의 급진주의자들은 ‘잉글랜드의 위기가 아일랜드의 기회’라며 전쟁이 끝내기 전에 유혈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유혈 혁명의 신봉자였던 피어스는 아일랜드에 만연해 있던 무기력을 지적하면서, 설령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순교자가 탄생한다면 잉글랜드에 대한 저항 정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¹⁰⁴⁾ 형제단은 구체적으로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1915년 5월에 피어스, 플런켓, 켄트 세 사람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극비 조직인 ‘군부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맥닐 몰래 부활절 봉기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계획하였다.

맥닐이 처음으로 봉기 계획을 감지한 것은 1915년 11월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의용군 내부의 분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의용군 외부의 사회주의 집단에서 봉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코놀리는 아일랜드에서 당장 봉기가 필요하다고

101) Duffy and Martin, *The Easter rising, 1916 and University College*, p. 26.

102) Martin, *The Irish Volunteers, 1913-1915*, p. 72.

103) Martin and Byrne, *The Scholar Revolutionary*, pp. 136-137.

104) Padraic Pearse, *Collected Works of Padraic H. Pearse: Plays, Stories, Poems* (Dublin, London: Maunsel and Co. Ltd., 1917)

여겼으며, 만약 의용군이 이러한 긴요한 필요성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200명가량의 시민군만 데리고라도 잉글랜드에 대항한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일랜드 의용군 집행부 내에서 코놀리의 호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리스마스 즈음과 1916년 신년에 두 차례 언급되면서 맥닐은 코놀리를 직접 만나 설득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두 사람의 대면 자리에서 맥닐은 코놀리에게 군사적 성공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만약 봉기가 시작된다면 “북부의 신교도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에 맞설 것이며,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내전으로부터 구한다는 핑계를 들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¹⁰⁵⁾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당장의 봉기에 대한 맥닐의 반대는 얼스터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코놀리는 맥닐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으며, 피어스가 맥닐 몰래 코놀리에게 부활절 봉기 계획에 대하여 언질하고 나서야 시민군 주도의 봉기 계획을 철회하였다.

코놀리가 불러온 소요는 의용군 내부에도 봉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맥닐은 봉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의용군 수뇌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의용군 내에도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잉글랜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코놀리와의 면담에 앞서 의용군 내에서의 입장을 정리하려 하였으며, 의용군 위원회 내의 급진파에 해당하는 피어스, 플런켓과 맥도나를 불러내 그들로부터 봉기는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아냈다.¹⁰⁶⁾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맥닐은 리머릭에서 자신이 내리지 않은 훈련 명령이 피어스를 통하여 전달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명령은 아일랜드에 전쟁이 발생할 시의 군사적 배치를 포함하는 훈련이었고, 따라서 피어스가 봉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맥닐이 주축이 되어 추구해왔던 의용군 집행부의 정책은 아일랜드 의용군이 영국의 강압이나 무장해제, 혹은 강제 징집을 단행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이었지 선제공격을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¹⁰⁷⁾ 맥닐은 피어스가 내린 명령이 자

105) Martin and MacNeill, “Eoin MacNeill on the 1916 Rising,” p. 246.

106) Ibid.

신이 추구하는 정책과 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의용군 회의를 소집하였다. 무용한 봉기를 막기 위해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맥닐의 부서 없이는 그 어떤 특별 행동 명령도 의용군에게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 투표를 통하여 통과되었다.¹⁰⁸⁾ 맥닐은 이제 의용군 내의 급진파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훈련이나 동원령을 내릴 수 없으리라고 믿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봉기는 결국 막을 수 없었다. 맥닐은 봉기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형제단이 의용군을 이용하여 잉글랜드에 대항하는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곧바로 흡슨과 함께 피어스를 찾아가 자신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봉기 계획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나 형제단은 이런 맥닐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았다.¹⁰⁹⁾ 맥닐은 결국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봉기로 인하여 인명을 희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용군의 동원 명령이 취소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활절 일요일로 예정되었던 아일랜드 의용군에 대한 모든 명령은 현재부로 철회되며, 그 어떤 가두 행진이나 행군 등의 행동도 이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의용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¹¹⁰⁾

그는 ‘아일랜드 의용군에 대한 모든 명령’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통하여 이 날 봉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봉기가 취소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전국 각지로 ‘의용군은 완전히 기만당했다. 특별 행동에 대한 모든 명령은 지금부터 취소되며, 어떤 행동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령을 보내어 장교들이 봉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¹¹¹⁾ 맥닐의 전언을 들은 많은 의용군 구성원들은 부활절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봉기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여 집으

107) Ibid., p. 247.

108) Ibid.

109) Ibid.

110) *Sunday Independent*, 23 April 1916.

111) Tierney, *Eoin MacNeill*, p. 208.

로 돌아갔고, 더블린에 있던 학생들은 부활절 휴일을 보내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갔다. 결국 하루 미루어진 월요일에 봉기가 일어났을 때 집결한 인원은 본래 예정되었던 인원의 반도 채 되지 않았다.

맥닐의 동원 철회 명령은 맥닐의 사후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남겼다. 부활절 봉기가 영국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아일랜드인들의 공분을 사고, 봉기로 인하여 처형 받은 인물들이 민족적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동원 철회 명령을 내린 맥닐은 봉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처형을 앞두고 있던 피어스와 맥도나가 “맥닐의 치명적인 철회 명령이 전 아일랜드에서 부활절 봉기 계획이 시행되는 것을 방해했다”¹¹²⁾고 언급한 것 역시 훗날 맥닐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의용군을 설립한 맥닐의 의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부활절 봉기에 대한 맥닐의 반대는 이전까지의 민족주의적 운동에서 맥닐이 보여주었던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것은 대중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과 아일랜드의 통합이었다. 피어스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형제단원들과 맥닐 사이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피어스의 경우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아일랜드 대중을 일깨울 ‘영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아일랜드의 신화적 영웅인 쿠홀린을 신봉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영웅이 될 학생들을 양성하였다.¹¹³⁾ 그에게는 소수의 영웅적 존재들이 아일랜드 대중을 정확히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 맥닐은 대중 운동 그 자체에 주목했고, 의용군 활동에 참여한 개개인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겼다. 의용군의 설립 과정에서 맥닐이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바로 대중이 얼마만큼 이 운동에 동조하고 참여하느냐는 것이었다. 맥닐은 “영국 헌정 하에서 아일랜드인들이 의용군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은 입법적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¹¹⁴⁾고 밝힌 바 있다. 맥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인들이 의용군의 설립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

112) Lynch, *The I.R.B. and the 1916 Insurrection*, p. 172.

113) Elaine Sisson, *Pearse's Patriots: St Enda's and the Cult of Boyhood* (Cork: Cork University Press, 2004)

114) *The Irish Volunteer*, 28 March 1914.

서 소수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대중이 희생되는 일은 맥닐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중을 신뢰하고 있던 맥닐은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부활절 봉기를 반대했다.

맥닐이 부활절 봉기에 반대한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분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맥닐은 유혈 봉기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 ‘얼스터 지역과의 완전한 분열’이 있을 것을 들었다.¹¹⁵⁾ 맥닐은 의용군을 설립하던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얼스터는 아일랜드의 일부이며, 얼스터와의 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¹¹⁶⁾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만약 아일랜드 지역에서 잉글랜드에 대한 무력 봉기가 일어난다면 얼스터 의용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 올 것이고, 잉글랜드가 이를 방조함으로써 아일랜드에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맥닐에게 1916년에 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얼스터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는 최대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피어스를 위시한 급진적인 형제단원들을 설득하는데 힘썼다. 맥닐에게 ‘아일랜드 의용군 서약은 아일랜드의 통합에 대한 서약’이었고 부활절 봉기를 일으킨 이들은 의용군에 대한 서약을 배신한 이들이었다.¹¹⁷⁾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맥닐은 스스로 설정해놓은 이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게일연맹은 구어로서의 아일랜드어를 부활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아일랜드 의용군은 레드몬드 세력과 형제단의 급진적인 세력들에 의하여 분열되었고,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부활절 봉기가 발발하며 얼스터와의 통합 역시 불가능한 꿈으로 남았다. 그가 구상했던 ‘신교도와 가톨릭이 조화된 아일랜드 전역의 통합’이라는 이상은 분명히 실패로 돌아갔다. 얼스터와 아일랜드 남부의 갈등을 봉합되지 않았으며, 1919~1921년 사이 전개된 영-아일랜드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들은 가톨릭교도들이었다.

그러나 맥닐의 유산은 아일랜드에 남았다. 맥닐은 파넬 사후 분열의 시대에 아일랜드 인들이 다시금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게일연맹이라는 장

115) Martin and MacNeill, “Eoin MacNeill on the 1916 Rising,” p. 246.

116) *The Irish Volunteer*, 11 July 1914.

117) *The Irish Volunteer*, 19 September 1914.

을 제공하였고, 이렇게 결집된 이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단체인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맥닐은 의회당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치 운동의 직접적인 참여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대중을 다시금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로 되살려냈다. 맥닐 자신은 부활절 봉기에 반대했으나 그가 설립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아일랜드 의용군은 부활절 봉기의 중심 조직이 되었다. 레드몬드의 집권 이후 거리로의 행진이 아닌 의회를 통한 자치의 획득을 추구해 왔던 일반 대중이 맥닐이 마련한 민족 운동의 공간을 통하여 다시 주체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게일연맹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아일랜드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아일랜드 의용군에 참여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여 자치법을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맥닐이 파넬 사후 분열되어 있던 아일랜드 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아일랜드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와 자치 획득의 수단으로서의 무력의 부활이었다. 맥닐은 분열되어 있던 민족주의 운동을 통합하는 구심점을 만들어내고 대중을 다시금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냈다.

IV. 결론

맥닐은 ‘분열의 시대에 대중이라는 단위로 아일랜드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파넬의 실각 이후 아일랜드의 자치 운동이 활력을 잃은 상황 속에서 게일연맹과 아일랜드 의용군이라는 두 개의 큰 조직을 설립하였고, 두 단체 모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겉보기에 맥닐의 의용군 조직은 문화적 민족주의에서 군사적 민족주의로의 급격한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사상적인 일관성을 유지한 채 아일랜드 민중을 통합하고 대중을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로 다시금 위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맥닐은 분열된 아일랜드를 정치, 종교, 성별, 계급과 무관하게 ‘아일랜드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였고 게일연맹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아일랜드 인들을 재편하였다. 또한 레드몬드의 집권 하에서 자치 운동에 대한 직접적 참여로부터 멀어진 아일랜드 대중을 ‘의용군’으로 편제함으로써 다시금 그들을 자치 운동의 주체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맥닐의 민족주의적 활동들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설립에 참여하였고 훗날 회장직까지 역임하였던 게일연맹은 1915년이 되면 결국 비정파적인 노선을 버렸고, 아일랜드 의용군은 급진적인 형제단에 의하여 부활절 봉기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실패는 맥닐이 채택한 방식에 고유한 한계 때문이었다. 그는 언어를 민족성의 요체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아일랜드어는 아일랜드가 자유국이 된 이후로도 제1언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는 1798년과 20세기 초반의 상황이 전혀 다르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얼스터 신교도들을 민족주의 운동 속으로 포섭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1798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 내에서는 신교도가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이 쉽게 민족주의 운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이 되면 오코넬이 이끌었던 가톨릭 해방 운동에 의하여 자유로워진 가톨릭교도

들이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하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신교도가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기반이 약해진 얼스터 신교도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하나의 아일랜드 안에 포함되기 보다는 영제국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맥닐은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파넬 사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던 아일랜드 자치운동의 방향을 대중에게로 돌렸다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입법적 수단을 추구하는 자치주의자, 무력적 수단을 주장하는 군사주의자,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 등 다양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맥닐이 구상하고 설립한 민족주의적인 단체들에서 활동하였고, 이들은 단일한 단체 안에서 ‘아일랜드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이전까지 의회당이 주축이 되어 입법적 수단을 통한 자치의 획득을 전개했던 것과 달리 맥닐은 아일랜드 대중이 직접 거리로 뛰어나와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으며, 이들은 전보다 훨씬 급진적인 방식으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아일랜드 청년층은 후에 1919년~1921년의 아일랜드 내전에 참여하여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획득해내게 되었다.

맥닐이 아일랜드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게일연맹에서 언어를 배우고, 의용군에서 무장을 불사하는 자치의 의지를 습득한 아일랜드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훗날 영국을 상대로 한 게릴라 전쟁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끝내 잉글랜드를 상대로 영-아일랜드 조약의 체결과 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을 쟁취해냈다. 맥닐은 민족의 통합과 대중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을 희구하였으며, 그가 구상하고 설립하였던 민족주의적 단체들은 영국의 의회만을 바라보던 아일랜드 대중의 시선을 다시 스스로에게 돌리게끔 만들었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1) 의회자료

Parliamentary Papers, 18 October 1916, Vol. 86, c. 678.

Thomas Jones, *Whitehall di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2) 신문

An Claidheamh Soluis

Gaelic Journal

Irish Ecclesiastical Record

The Irish Volunteer

Sunday Independent

3) 기타 출판물

Hobson, Bulmer, *Ireland Yesterday and Tomorrow* (Tralee: Anvil Books, 1968)

MacNeill, Eoin, *Irish in th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A Plea for Irish Education* (Dublin: An Cló-Cumann Ltd, 1908)

_____, *Phases of Irish History* (Dublin: Gill & Son, 1919)

_____, *The Ulster Difficulty* (1920)

Lynch, Diarmuid, *The I.R.B. and the 1916 Insurrection: a Record of the Preparations for the Rising, with Comments on Published Works Relating thereto, and a Report on Operations in the G.P.O. Garrison Area during Easter Week, 1916* (Cork: Mercier Press, 1957)

Martin, F. X. (ed.), *The Irish Volunteers, 1913-1915: Recollections and Documents* (Dublin: J. Duffy, 1963)

Moran, D. P., *The Philosophy of Irish Ireland* (Dublin: University College Dublin Press, 2006)

Pearse, Padraic, *Collected Works of Pádraic H. Pearse: Political Writings and Speeches* (Dublin and London: Maunsel & Roberts Ltd., 1922)

Ryan, John (ed.), *Féil-sgríbhinn Eóin Mhic Néill: Essays and Studies Presented to Professor Eoin MacNeill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May 15th 1938* (Dublin: Three Candles, 1940)

Martin, F. X. and MacNeill, Eoin, “Eoin MacNeill on the 1916 Rising,” *Irish Historical Studies*, Vol. 12, No. 47 (Mar., 1961), pp. 226-271.

Royal Society of Antiquaries of Ireland, “The Celtic Society, or Irish Historical and Literary Association”, *Transactions of the Kilkenny Archaeological Society*, Vol. 1, No. 2 (1850), pp. 1-12.

2. 2차 자료

1) 단행본

김기순, 『글래드스톤과 아일랜드: 자치법안 정치사 연구』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9)

박지향, 『클래식 영국사』 (김영사, 2012)

_____, 『슬픈 아일랜드』 (기파랑, 2008)

테오 W. 무디·프랭크 X. 마틴, 박일우 역, 『아일랜드의 역사: 도전과 투쟁, 부활과 희망의 대서사시』 (한울, 2009)

Bew, Paul, *Ireland: the Politics of Enmity 1789-20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Crowley, Tony, *War of Words: The Politics of Language in*

- Ireland, 1537-200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Duffy, Louise Gavan and Martin, F. X., *The Easter Rising, 1916 and University College, Dublin* (Dublin: Browne & Nolan, 1966)
- Dunleavy, Janet and Dunleavy, Gareth, *Douglas Hyde: A Maker of Modern Ire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Fanning, Ronan, *Fatal Path* (London: Faber & Faber, 2013)
- Foster, R. F., *Modern Ireland, 1600-1972* (New York: Penguin Books, 1989)
- Hutchinson, John, *The Dynamics of Cultural Nationalism: The Gaelic Revival and the Creation of the Irish Nation State* (London: Allen&Urwin, 2008)
- Leon, O Broin, *Dublin Castle and the 1916 Rising*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 MacDonagh, Oliver, Mandel, W. F., and Travers, Pauric, *Irish Culture and Nationalism 1750-1950* (London: Macmillan in association with Humanities Research Cent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1)
- MacMahon, Timothy G., *Grand Opportunity: The Gaelic Revival and Irish Society, 1893-1910*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 Press, 2008)
- Mansergh, Nicholas, *Nationalism and Independence*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97)
- Martin, F. X. (ed.), *Leaders and Men of the Easter Rising*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Martin, F. X. and Byrne, F. J. (ed.), *The Scholar Revolutionary: Eoin MacNeill, 1867-1945, and the Making of the New Ireland* (Shannon: Irish University Press, 1973)
- Matthews, P. J., *Revival: The Abbey Theatre, Sinn Fein, the Gaelic League and the Co-operative Movement* (Cork: Cork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Field Day, 2003)
- McGarry, Fearghal, *The Ris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Nowlan, Kevin B., *The Making of 1916: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ising* (Dublin: Stationery Office, 1969)
- Sisson, Elaine, *Pearse's patriots: St Enda's and the Cult of Boyhood* (Cork: Cork University Press, 2004)
- Tierney, Michael, *Eoin MacNeill: Scholar and Man of Action, 1867-1945*, Martin, F. X.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Townshend, Charles, *Easter 1916: The Irish Rebellion* (Chicago: Ivan R. Dee, 2006)

Wheatley, Michael, *Nationalism and the Irish Party: Provincial Ireland, 1910-19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Yeats, W. B., *Autobiographies* (London: Macmillan, 1956)

2) 논문

박지향, 「아일랜드 역사서술: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제 50호 (2000), pp. 251-279.

_____, 「게일연맹과 언어 민족주의」, 『서양사론』, 제 84호 (2005. 3), pp. 109-141.

Bew, Paul, “Moderate Nationalism and the Irish Revolution, 1916-1923,” *The Historical Journal*, Vol. 42, No. 3 (Sep., 1999), pp. 729-749.

Campbell, Fergus, “The Social Dynamics of Nationalist Politics in the West of Ireland 1898-1918,” *Past & Present*, No. 182 (Feb., 2004), pp. 175-209.

Congáil, Ríona Nic, “Life and the Dream: Utopian Impulses Within the Irish Language Revival,” *Utopian Studies*, Vol. 23, No. 2 (2012), pp. 430-449.

Doherty, Gabriel, “National Identity and the Study of Irish

- History,” *The English History Review*, Vol. 111, No. 441 (Apr., 1996), pp. 324-349.
- English, Richard, “Directions in Historiography: History and Irish nationalism,” *Irish Historical Studies*, Vol. 37, No. 147 (2011), pp. 447-460.
- Fitzpatrick, David, “The Geography of Irish Nationalism 1910-1921,” *Past & Present*, No. 78 (Feb., 1978), pp. 113-144.
- French, Briggittine M., “Linguistic Science and Nationalist Revolution: Expert Knowledge and the Making of Sameness in Pre-Independent Ireland, Language in Society,” Vol. 38, No. 5 (Nov., 2009), pp. 607-625.
- Hart, Peter, “The Geography of Revolution in Ireland 1917-1923,” *Past & Present*, No. 155 (May, 1997), pp. 142-176.
- Hepburn, A. C., “Language, Religion and National Identity in Ireland since 1880,”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2001), pp. 197-220.
- McMahon, Timothy G., ““All Creeds and All Classes”? Just Who Made Up the Gaelic League?,” *Eire-Ireland: a Journal of Irish Studies*, Vol. 34, No. 3-4 (2002), pp. 118-168.
- Ryan, John, “Eoin Mac Neill 1867-1945,” *Studies: An Irish Quarterly Review*, No. 34 (1945), pp. 433-448.

William, Martin, "Ancient Mythology and Revolutionary Ideology in Ireland, 1878-1916," *The Historical Journal*, Vol. 26, No. 2 (Jun., 1983), pp 307-328.

Abstract

Eoin MacNeill and the Irish Nationalist Movement

This research is an effort to examine Eoin MacNeill's nationalistic creed by focusing on his role and influence in the Irish Nationalist Movement in fin-de-siècle Ireland. MacNeill was a leading nationalist of the day who actively took part in both cultural and militaristic movements. His contribution in constructing and developing the Gaelic League and the Irish Volunteers, both essential organizations of the movement, was part of his effort to deal with the division of Ireland and indifference of Irish public to nationalist movement. However, despite such leading role in promoting Irish Nationalism, his importance has been underestimated by many Irish historians. In most cases he has been portrayed as an 'indecisive leader' or 'one who was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Easter Rising'. Even when historical re-evalu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revisionism in the history of the Irish nationalistic movement has become available, MacNeill was not saved from biased and slanted views. As a result, his share in changing the direction of Irish nationalistic movements has not been fully identified, leaving the analysis of his nationalistic creed still at a superficial level.

Contrary to previous accounts, MacNeill endeavored to unify Irish people into 'one Ireland' and restore public dominance in

the Home Rule movement. Such attitude of MacNeill was based on the social context of Ireland of the day. Ireland in the 1890s was under serious national division. The death of Charles Parnell, the national leader who embraced both Catholics and Protestants, intensified religious conflict. Religious and regional feud also upsurged as the people of Ulster strongly objec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ome Rule Bill. In addition, unlike Parnell who mobilized the Irish public for the nationalistic movement, Redmond, the following leader of the Irish Parliamentary Party, never trusted the common people. His stubborn trust on the legislation of the Home Rule Bill alienated the Irish public from the nationalistic movement under his leadership.

This research analyzes MacNeill's nationalistic movement in both cultural and militaristic facets and argues that his posi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movement was consistent. First, in terms of his cultural contribution, his activity in the Gaelic League will be reviewed. This approach will reveal that he used Irish language to consolidate Irish national identity and attract the common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istic movement. Second, his activity in the Irish Volunteers will be examined to explain his militaristic contribution. This will demonstrate his leadership among the Irish public and his role in promot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nationalistic movements against England.

Despite his ardent effort, MacNeill's activities were not always successful. The Gaelic League which started as a non-party, non-religious association developed into a political association in 1913, excluding the moderate nationalists. In addition, the Irish Volunteers changed its position from defensive militarism to

offensive militarism when the Easter Rising broke out against MacNeill's will. As a result of the Rising, Ulster was separated from the rest of Ireland forever and the reconciliation of Catholics and Protestants became an impossible dream. Nevertheless, MacNeill did succeed in placing the Irish public back into the center of the nationalistic movements. The Irish public who devolved the nationalistic initiative upon Irish Parliamentary Party after the death of Parnell decided to reclaim their role as the leader of the nationalistic movement. This change became an impetus which led the nationalistic movements of Ireland in the 1920s.

MacNeill's contribution to the Irish nationalist movement bore fruit when young nationalists such as Michael Collins and Éamon de Valer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nglo-Irish War. They were the ones who established Irish identity in the Gaelic League and learned military drills from the Irish Volunteers. They won the war and the heritage of MacNeill remained.

Keyword: Eoin MacNeill, Irish Nationalism, Gaelic League, Irish Volunteers, Easter Rising

Student Number: 2013-20043